

3월 28일(월) / 신16-18

▶**내용요약:**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와 이어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칠칠절은 후에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이다. 17장은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규례와 중앙 성소에서 열리는 고등재판정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의 선택과 의무를 기록한다. 18장은 왕에 이어 하나님의 일꾼들인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의 직분과 의무가 나와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구약의 3대 주요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질문:** 재판할 때 지혜자의 눈을 어떻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에 받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16장)

▶**생각하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성소에 나와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기뻐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자.

3월 31일(목) / 수4-6

▶**내용요약:** 4장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다. 5장은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40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만나대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된다. 6장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6일간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돈 후 함성을 질렀다. 그러자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질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의미로 부르게 된 지명은 무엇인가?(5장)

▶**생각하기:** 길갈에 세운 열두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다는 기념비가 되어 그 후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 우리에게 길갈의 열두 돌과 같은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가? 현재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4월 3일(일) / 사1-3

▶**내용요약:**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한다.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의 대부분을 점령하지만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산재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화근과

3월 29일(화) / 신31-34

▶**내용요약:** 신명기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 부분으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31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이 하던 사역들을 정리한다. 32장은 모세가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될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 33장은 지도자로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된다.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진다.

▶**질문:**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34장)

▶**생각하기:**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33:29)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며 우리 학교는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 우리가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4월 1일(금) / 수7-9

▶**내용요약:** 7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다. 그 원인은 아간이 전리품을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밝혀져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소유는 불태워진다. 8장은 아간을 처벌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이어 에발산에서 율법을 읽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9장에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으로 평화조약을 맺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인근 거리에 살던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게 된다.

▶**질문:** 죄를 범한 아간이 죽임을 당한 곳은 어디인가?(7장)

▶**생각하기:**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의도치 않게 맺게 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맡은 일이 중요하건 사소하건 우리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할 일에 대해 물으며 기도하였는가?

울무가 되고 만다. 2장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악순환 되는 역사의 주기를 보게 되는데, 평화시대-반역-징계(심판)-부르짖음-구원과 평화시대-다시 반역이다. 3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인 오토엘, 에훗, 삼갈의 사역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장면이 나와 있다.

▶**질문:**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누구인가?(3장)

3월 30일(수) / 수1-3

▶**내용요약:**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110세에 죽기까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이스라엘의 충성 서약을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복귀한다. 3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처럼 강물이 멈추면서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질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였는가?(3장)

▶**생각하기:**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3:5)는 명령이다. 이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체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성결이다.

4월 2일(토) / 수22-24

▶**내용요약:** 22장에서 요단 서쪽 정복이 완료되자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복귀한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에 쌓은 제단이 문제가 된다. 23장은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시키며 힘써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한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으면서 23장에 이어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게 한다.

▶**질문:** 요셉 자손의 기업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은 어디인가?(24장)

▶**생각하기:** 가나안 정복을 완료한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24:15)고 했던 결연한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생각하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셨으면 돌아올 만한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 또 다른 심판을 자초한다.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악순환의 역사를 끊어 버리겠다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